

테러범 식별요령



국 가 정 보 원
테러정보통합센터

테러범 식별요령

1. 테러범 식별요령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물품 등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때 외관이나 행동 또는 장소별로 눈여겨 보아야 할 테러범의 특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적인 테러범의 특징

■ 외 관

- 마스크나 수염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 또는 짙은 색깔의 안경을 착용한 사람

* 테러범은 자신의 용모를 변형시키거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노력

-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지나치게 배가 나왔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두껍고 긴 상의를 입고 땀을 많이 흘리며 눈초리가 불안한 사람

* 자살폭탄 테러범의 경우 주로 복대 형식으로 다량의 폭탄을 상의 안에 착용하고 두꺼운 옷으로 이를 은폐

- 중동 등 테러 빈발지역의 경우 테러범의 연령은 대개 20~40대 남성

* 최근 알 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은 여성과 어린이까지도 자살폭탄테러 등에 활용

■ 행 동

- 공항만 · 호텔 · 철도驛舍 ·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통, 휴게실이나 열차 · 버스의 선반 등에 가방이나 박스 등을 실수인척 방치하고 현장을 급히 이탈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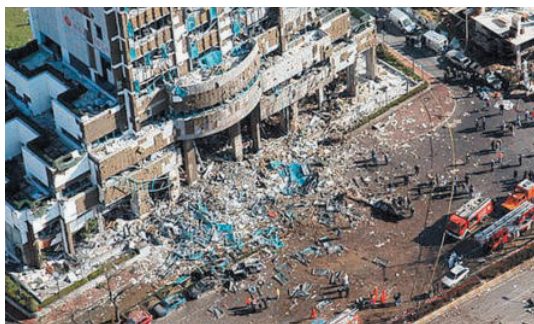
* 일반 폭탄테러의 경우 특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기 보다 흔히 가방형태의 시한 · 원격조종장치 폭발물을 제작해 목표지점에 방치하는 수법 사용

- ♣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접근하여 물건을 바뜨렸다고 알려주고 이후 행동거지를 예의 주시하여야 하며, 자신의 소유임을 부인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재차 방치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항만 · 호텔 · 철도역사 ·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오토바이나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급히 이탈하는 사람

* 테러범이 폭발물 장착 차량을 목표지점에 두고 도주할 가능성 의심

- ♣ 정상적인 주차시설이 아닐 경우 즉시 차량 이동을 요구하고 행동거지가 수상할 때는 인근 경찰 등에 신고하여 대상자가 불신검문을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003.11.20 터키 이스탄불 소재 영국계 HSBC 은행 차량폭탄테러 현장

- 경찰 등 보안요원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갑자기 뛰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

* 침착한 테러범도 통상 보안요원에 대해서는 공포감이나 경계심을 드러냄

♣ 다중이용시설에서 성인이 갑자기 뛰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경우 지극히 위험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 호텔 숙박비 · 항공요금 지불시 신용카드나 수표 대신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

* 테러후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행위로 의심

● 국적이나 숙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황해 하거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 신분노출과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테러범의 본능적인 행동으로 의심

나. 각종 폭탄테러범 · 장비의 특징

■ 폭발물 적재차량의 운전자

● 변덕스런 운전을 할때(천천히 또는 빨리)

● 정지명령을 무시하거나 검문소를 우회하려 할 때

- 불안한 모습이나 비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
- 트럭 또는 장비를 서투르게 다루는 행위
- 운전자의 나이는 통상 20대 중반 정도

폭발물 적재 차량

- 차량바퀴가 눈에 띄게 내려 앉았을 때
- 창문이 어둡거나 가려져 있을 때
- 차량안에 의심스런 물건이 실려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스위치 · 송신기 등 기폭장치나 전선줄 · 밧줄 등)
- 차량에 보조 안테나가 달려있을 경우
- 주차하기가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방치되듯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 앞뒤 번호판이 다르거나 미등록 임시번호판을 단채
방치된 차량

■ 자살폭탄테러범

- 자폭전까지 주먹을 계속 쥐고 있음
 - * 통상 주먹을 펼 경우, 폭발물이 폭발되도록 장치
- 폭약냄새를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향수를 사용
-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허리 또는 아랫배가 불룩한 복장



2004.3.24 팔레스타인 자살폭탄 테러범인 14세 소년이 이스라엘 검문소에서 적발된 장면

- 군중속에서 일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행으로 보이게 하려는 행동을 할 경우
- 스트레스를 받은듯이 소심한 모습에 비정상적으로 땀을 흘림

- 천천히 걷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살피며 갑자기 뛰는 행동
- 의도적으로 보안요원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시도
- 가방이나 의복속에서 전선이나 전기장치가 보일 경우

■ 우편폭탄

-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낸 우편물
- 인편으로 직접 배달되었거나 낯선 우편 배달부가 가져온 우편물
- 발송자나 소인이 없는 우편물
- 내용물이 금속류나 전선 등으로 느껴지는 우편물
- 부피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지거나 과대 포장된 우편물
- 아몬드 냄새 등 독특한 냄새가 나는 우편물
- 봉투나 포장종이에 기름 자국이 묻은 우편물



다. 장소별 테러범 식별요령

■ 공 항 만

- 항공권 발급 및 입출국 수속시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거나 대화를 기피하는 사람

* 테러범의 불안한 심리의 표현 또는 위조 신분증 소지자의 경우 사진과 실물의 대조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심

- 신규·임시 발급·재발급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 정상적으로 수차 검색을 거친 여권에 비해 첫 검색 대상인 신규 여권과 상대적으로 위조가 용이한 임시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색이 필요합니다

- 타 여행객에게 접근하여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가방·서류(봉투) 등을 운반해 주도록 부탁하는 사람

* 테러범이 폭탄 등 테러 수단을 일반 수하물로 위장, 타인을 통해 반입·반출시키려는 의도로 의심

- 여권상 여행국 출입국 날짜 · 횟수 등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수년전 기록된 출입국 날짜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

* 테러범이 위조된 여권에 대해 미처 숙지하지 못했거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암기했을 가능성 의심

- 중동 · 북부 아프리카 · 동남아 · 서남아 등 국제테러 조직 활동지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비자신청서 등에 기재된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전문용어에 대해 무지하거나 소지자의 직업 · 연령 등이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

- 실물과 사진이 현저히 다르거나 유럽 · 영국 · 미국 · 호주 여권을 사용하면서도 영어가 서툰 사람

* 테러범의 경우 통상 다수의 가명과 위조 신분증 소지

- 직항로가 있음에도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 政情과 치안이 불안하고 테러조직의 활동이 왕성한 국가로부터 직항로를 이용할 경우 검색강화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

* 검색이 허술한 제3국 CIQ에서 공범으로부터 테러 물품을 전달받아 입국할 가능성 의심

- 불안한 눈초리로 주위를 지나치게 살피면서 누군가를 찾거나 공항 對테러 특공대 등 보안요원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

* 공범과의 접선 의도 및 범죄 의도자로서의 불안심리 표출 가능성 의심

■ 철 도(일반철도 · 고속철 · 지하철)

- 철도 승차권 발급 또는 개찰구 진출입시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대화를 기피하는 사람

- 승차권 발급시 별 생각없이 목적지를 반복 · 변경하는 사람

* 테러범에게 중요한 것은 테러 공격이므로 여행 목적지를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변경 · 반복할 가능성 의심

- 성인, 특히 외국인이 철도역사 주변을 서성거리며 사진을 찍거나 거리 등을 계측하는 사람

* 테러범이 폭발물 설치를 위해 사전 정찰중일 가능성 의심

- 물품보관함의 물품 보관자와 회수자가 다를 때

* 테러범들이 물품보관함을 연락 또는 물품 전달수단으로 이용 가능성 의심

- ♣ 임시 물품 보관함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시설물 구석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5.7.7 런던 지하철·버스 연쇄 폭탄테러 발생 현장

■ 호 텔

- 체크인·체크아웃 절차시 프론트 데스크 근무자와 가급적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다른 곳을 주시하며 대화를 하는 사람
- 중동·북부 아프리카·동남아·서남아 등 국제테러 조직 활동지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호텔 내귀임을 내세워 자발적 신분증 제시 유도 및 검사 필요

● 신규 · 임시 발급 · 재발급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투숙한 후 외출을 거의하지 않고 주로 방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 테러범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테러)와 관련 없는 물의
야기 · 의혹을 원천 차단키 위해 불필요한 외출, 타인 접촉
등을 피하려고 노력

● 객실에서 내선 전화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거의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 공안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숨기려는
행위로 의심

● 숙박부에 기재된 직업관련 전문용어에 대해 무지하거나
직업 · 연령 등이 기재사항과 불일치 하는 사람

● 처음 방문하는 지역에서도 렌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 픽업 트럭 등을 사용하는 사람

* 흡친 차량이거나 현지 공범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일 가능성

- 차량을 렌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치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차량 렌트가 관광목적이 아니라 특정 목적(테러)을 위한 준비단계 가능성 의심

- 손가방 등 수하물을 객실로 옮겨주겠다는 벨데스크 직원 등의 제의에 대해 놀라며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거부하는 등 수하물에 집착하는 사람

* 수하물에 폭탄 등 테러 수단 은닉 가능성 의심

- 장기간에 걸쳐 룸메이드의 청소를 거부하고 룸서비스도 문밖에서만 받는 등 외부인의 방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사람

* 방안에서 폭발물 제조 등 테러준비 가능성 의심

- ♣ 호텔 종사자는 의심자를 발견할 경우 외모의 특징 · 여권번호 · 생년월일 · 국적 등 신상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여 경찰 등 보안관계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경비원과 청소부는 호텔을 기웃거리는 외국인, 객실에서 전선 · 화공약품 · 비커 등이 발견되거나 약품 등의 특이 냄새가 날 경우 즉시 경찰 등 보안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백 화 점

-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조직의 활동 근거지인 중동 · 북부 아프리카 · 동남아 · 서남아지역 국가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 9.11 이후 이슬람 과격단체가 국제 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 국가인들에 대해서는 일단 행동거지에 대해 예의 주시 필요
- 화장실 · 휴게실 · 쓰레기통 등에 가방 등 물품을 실수 인척 방치하거나 출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굳이 차량을 주차시키려는 사람

■ 음식점 · 유흥주점 · 나이트클럽

- 술을 주문하지 않거나 주문해 놓고도 거의 마시지 않은 채 구석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유심히 살피는 외국인
 - * 테러범이 테러 전 단계에서 목표물에 대한 사전 정찰중일 가능성 의심
- 실내에서 두툽한 외투를 걸치거나 가방 등을 들고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옮겨가려는 사람

- 시설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관광객을 가장해 인물이 아닌 시설물의 사진을 촬영하려는 사람
 - 일반 관광객의 도를 넘어 시설물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유심히 살피는 사람
- * 테러범의 경우 통상 테러전 목표지점에 대한 사전 정찰을 통해 테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2. 소형선박 이용 해상 폭탄테러 식별요령

- 2000.10 예멘 아덴항에서 발생한 美 함정 「콜」호 폭탄 테러의 경우는 테러 발생 수 일전 테러 공격 첩보가 입수되었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대규모 피해(17명 사망, 39명 부상) 발생

♣ 테러공격 징후

- FBI는 “미 해군함에 대한 로켓 공격 첩보를 입수, 국방부와 CIA에 테러를 경고(당시 국방부는 동 경고를 간과)
- 테러범들이 아덴항 인근 한 아파트에서 체류하며 폭탄을 제조한 흔적 확인(예멘 수사당국이 동 아파트에서 폭탄 제조장비 등 압수)
- 사건당일 안경을 쓰고 턱수염이 있는 남자가 돈을 주며 항구 주변에 주차한 차량을 봐달라는 부탁을 한 후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12세 소년이 제보(동 차량에서 테러관련 문서 등을 압수)

가. 테러 공격을 위한 사전 훈련과정중 징후

- 연안에서 소형 선박이 정박 또는 운항중인 선박에 고속으로 접근하는 경우

- * 소형 선박이 대형선박 충돌 폭탄 테러를 위해서는 사전에 실전 훈련이 필요하므로 테러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판단 가능

- 특히 야간에 소형 선박이 대형선박을 뒤쫓아 가는 경우

- * 이러한 활동은 목표물에 접근하기 위해 대형 선박을 엄폐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하기 위해 사전 훈련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 2~3명이 수상한 행동을 반복할 때

- * 소형선박 폭탄테러를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공작원을 필요로 하므로 준비과정으로 판단 가능

- 소형 선박이 쓰임새와 부합되지 않는 곳 또는 제한구역 인근에서 운항하는 경우

- * 소형선박이 운항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서 운항하거나 낚시 등을 하는 경우 경계 상태 등을 시험해 보는 정찰 활동으로 판단 가능

- 침몰 또는 표류했던 소형 선박에 탑승한 선원들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

- * 소형선박 폭탄테러 공작원들이 현지의 항해 규정, 구조대의 소재, 암초의 정확한 위치 및 항해술 미숙지로 좌초되어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 의심

나. 선박 구입 및 구조 변경관련 징후

- 개인으로부터 소형 선박, 제트스키, 모터보트용 엔진, 가솔린 탱크 혹은 관련 장비 등을 특히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 * 테러범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을 임대하기 보다는 구입하는 방법을 선호

- * 연료 탱크,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항해지도 등 다량의 항해용품 구매도 테러행동 가능성 의심

- 선박업이나 어업에 경험이 없는 자가 소형 선박(상업용·어업용)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 * 선박 관련 경험이 없는 자가 상업용 또는 어업용 선박을 구매하려 하는 경우, 테러에 이용할 가능성 의심

- 수상 레포트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구입하려는 경우

* 어업 혹은 기타 수상 레포트의 자격증은 테러 공작을 은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의심

- 현지 선박들의 깃발이나 직원 유니폼, 출입증, 관련물품 등을 절도 혹은 구매하려는 경우

* 테러범들이 테러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장하려는 가능성 의심

- 소형선박의 화물탑재 공간을 늘리거나 고속주행을 위한 비정상적인 구조변경을 요구할 경우

* 테러범들이 선박에 다량의 폭탄 장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선박 구조를 변경시키려는 가능성 의심

다. 사전 정찰과정중 징후

- 직업이 없어 보이는 젊은 외국인들이 해안가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

* 테러범들이 테러 계획을 실행하거나 목표물에 대한 정찰이 용이한 장소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 의심

● 연안에서 여행객, 현지근로자,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경우

♣ 대부분의 테러범들은 그들의 존재 혹은 활동을 숨기기 위한 가장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실체 파악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이 선박 판매 혹은 임대 업소에 취업하려는 경우

* 테러 협조자나 테러범들은 선박이나 관련 장비를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 이들 업소에 위장 취업할 수도 있음

● 제한구역 부근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하거나 배회하는 경우

* 대부분의 테러공격에는 사전에 대상 목표의 경계망을 뚫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찰 활동을 실시

● 제한구역 인근에서의 취업 혹은 인근 상가를 임대하려는 경우

* 대상 목표를 쉽게 정찰하고 잠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가능성 의심

3. 테러범 신고 요령

■ 신고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테러를 예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테러사건으로 초래될 인명과 재산피해를 감안하면 이를 예방하는데 기울이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수많은 이용객들의 인명은 물론 스스로의 안전과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테러 예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테러 예방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경계의식에서 시작되며, 여러분의 신고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러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나는 사람, 특히 거동이 수상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혼자서 상상하지 말고 의심이 드는 즉시 관리자나 보안관계자와 상의하여 작고 하찮은 내용이라도 신고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고 방법

일반전화기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번없이 111(국정원), 112(경찰), 119(소방) 등 신고번호만 눌러 통화하면 되고, 공중전화기의 경우에는 동전이나 전화카드가 없어도 빨간색 ‘긴급버튼’을 누른 후 신고번호를 입력하면 통화가 됩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도 일반전화기와 마찬가지로 국번을 누를 필요없이 신고번호를 바로 눌러 통화하면 됩니다.

마침 주변에 순찰중인 경찰관 등 보안요원이 있을 때는 거동 수상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보안요원을 은밀히 접촉하여 상황을 설명해 줍시다.

덜 긴급한 사항일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나 상담을 할 수도 있는데, 국정원 홈페이지(www.nis.go.kr)로 들어와 좌측 상단 “111 신고센터”의 “테러” 아이콘을 눌러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 신고 내용

우선 자신의 이름과 소속(직업), 현 위치를 밝히고,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내용과 이유를 가급적 6하원칙(언제·

어디서 · 누가 · 무엇을 · 어떻게 · 왜)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의 위치를 설명할 때는 자신이 위치한 건물이 대형 건물일 경우 층수 및 눈에 띄기 쉽거나 찾기 쉬운 인근 시설물(약국, 안내데스크 등)을 차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옷차림(종류 및 색깔), 외견상 특이점(콧수염, 흉터 등), 행동상 수상한 점을 마음속으로 정리해서 신고하되 여건상 가능하다면 신고 내용을 간단히 메모한 후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이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크기와 색깔, 재질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가급적 상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를 할 때는 가급적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대상자 또는 내용물이 의심스러운 물품 · 차량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이 거동 수상자일 경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현장에서 신고를 하되 그 사람의 눈과 마주치는 일이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주시하면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헐적으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차량 등을 발견했을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대상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가급적 벽이나 기둥 등 장애물 뒤에 몸을 숨긴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되, 보안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일반인들이 물품에 손을 대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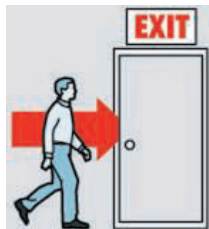
백색가루 등 생화학 테러 의심물질인 경우 물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시설물내 일반인을 우선 대피시킨 후 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신고상담을 기대합니다”

가. 폭탄테러

■ 일반 폭탄테러

-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될 때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고
 - 경찰에 신고한 후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 휴대폰이나 라디오는 전자파가 폭발물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폭발음이 바로 옆에서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정황을 살피되
 - 엎드릴 때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 폐·심장·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목 뒷덜미·귀·두개골을 보호해야 하며



- 폭발이 2~3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몇분 정도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다가 큰길의 한가운데 등 개활지 쪽으로 멀리 대피하는게 좋습니다.

● 폭탄이 설치된 차량에서 탈출할 경우에는

- 차량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신속히 대피한 다음 견고한 방어막 뒤에 은신해야 하며
- 현지 경찰 등 당국에서 설치한 경계선(폴리스라인)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살폭탄테러

【자살폭탄테러 발생시】

- 신속하게 테러현장을 탈출, 넓은 공간이나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대피하고
- 고층빌딩 밑이나 유리창 및 자동차 주변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며
- 주변에 경찰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살폭탄테러 종료시】

- 폭탄테러 발생 사실을 즉각 신고하고
- 경찰이나 구조요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 테러현장에는 숨겨진 새로운 폭발물이 터질수 있으므로 잠시 더 엎드려 있다가 상황을 보아 가며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 또한 구급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고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면서
- 현장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 발견시 지체없이 경찰이나 현장 안전요원에게 알려야 하며
- 테러범 인상착의 또는 차량번호 등 사소한 사항이라도 지체없이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우편 폭탄테러

- 우편폭탄은 얇게 만들기 위해 변형이 가능한 플라스틱 폭탄을 이용하고, 뇌관도 아스피린보다 조금 큰 정도의 스프링장치를 해서 개봉시 터지도록 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편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① 겉봉에 “○○만 개봉할 것” · “비공개” 등의 표시가 있거나, 반송 주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 ② 우표가 과다하게 붙었다든지, 소인이 발송지와 다를 경우
- ③ 주소가 틀리거나 조잡한 필체 등으로 쓰여진 경우
- ④ 내용물이 움직이거나 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 편지 봉투가 구겨져 있거나 크기가 보통 봉투보다 큰 경우
- ⑤ 소포에서 시계소리 등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경우
- ⑥ 촉감이 보통 편지나 소포와는 달리 딱딱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이나 금속제품이 들어있기 때문임
- ⑦ 끈 · 비닐테이프 등이 지나치게 많이 붙어있는 경우
- ⑧ 폭발물 제조에 사용된 일부 화학약품에서 물기가 배어 나오거나 이상한 냄새가 날 경우

- 우편물 폭탄테러는 책이나 담배같은 소포는 물론 편지로도 위장하는데
- 폭발물로 의심되는 우편물은 충격을 주거나 절대 개봉치 말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격리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소에 우편폭탄의 위험성을 주지시켜 항상 주의토록 해야 합니다.

■ 협박 전화

- 협박전화를 받으면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협박내용을 경청하고 녹음할 수 있으면 반드시 녹음을 해둡니다.
- 전화를 끊지 말고 전화건 사람이 계속 말을 하도록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 전화를 건 사람이 무의식중에 제공하는 단서
 - 즉, 성별, 연령, 발음, 억양 등 신상정보와



- 기적, 뱃고동, 기계음 등 배경소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 전화건 사람의 의도나 협박동기, 기타 언급한 모든 사항을 그대로 기록하고 통화가 끝나면 바로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 충기록/증화기를 이용한 공격

■ 충격 테러

- 충기 난사시 일단 옆드린 후 동정을 살피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고 갑자기 일어나 뛰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낮은 포복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엄폐물을 이용, 머리·가슴 등을 가려야 합니다.
- 상황이 끝나면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고 부상자를 구조해야 합니다.



■ 박격포 · 로켓 공격

- 경고 또는 안내에 따라 신속히 행동해야 합니다.

- 방공호 등 엄폐가 가능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엄폐 장소를 찾지 못할 경우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실내의 경우 창문에서 떨어진 곳에서 몸을 숙이고 엄폐물로 몸을 가리거나 깊숙한 방 또는 복도로 피신해야 합니다.
- 실외의 경우 즉시 엄폐물을 찾아 신속히 피신하고 안내 방송을 지속 청취하며 경찰 등 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다. 항공기 · 트럭 돌진테러

- 9.11 미국테러 당시 알 카에다 요원들이 여객기 4대를 납치하여 빌딩 등에 충돌한 시간은 불과 1~2 시간으로 대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납치범들에 의한 항공기 납치징후 등 이상동향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 등 보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9.11 테러에서는 서류절단용 칼만으로 여객기를 납치한후 여객기 자체를 테러무기로 삼았으므로, 총기 · 폭발물 등 전통적인 테러장비 외에도 테러가 감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실제, 주유소 및 기름 · LPG 운반차량 등 일상 주위에 널려 있는 위험시설 · 장비가 그 지배권만 탈취되면 모두 테러무기가 될 수 있어 위험물 관리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트럭 등 차량을 탈취하거나 렌트한후 자살돌진 하는 유형의 테러에 대비키 위해서는 시설물의 벽과 지붕을 보강하고 접근로에 타이어킬러 · 모래함 등 차단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 차량을 시설 부근에 주차시켜 두고 시한장치나 원격조종으로 폭파시키는 수법도 흔히 쓰이므로 수상한 차량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 ▶ 상징성이 큰 건물 주변에 버려진 차량
- ▶ 주차장이 아닌 번잡한 곳에 주차된 차량
- ▶ 분실된 차량이나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 ▶ 윈도우가 가려졌거나 테입으로 봉해진 차량
- ▶ 렌트카
- ▶ 드럼통·나무통(배럴) 등을 적재한 차량

라. 시설점거 및 인질억류 · 납치

■ 억류 · 납치시 대처요령

- 만일 인질로 억류되었거나 납치 감금을 당했다면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하라는 대로 응하고 급작스러운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 탈출 성공 가능성이 적거나, 완벽하게 탈출하기 어렵다면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002.1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단체에 납치된 WSJ 기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피살
- 납치된 사람이 여럿일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처신하고, 납치범에게 위협적인 인상을 쓰는 것은 금물이며, 납치범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납치범들이 무엇인가를 물어올 때는 답은 되도록 짧게 자연스러운 자세로 대답하고,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됩니다.

- 납치범이 무엇인가 지시할 때는 공손하게 순응하고,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며, 육성녹음 요구시 기꺼이 응하도록 합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건 외부에서 구출을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자제력을 잃지 말고 절망감을 가져서는 안되며, 탈출로 등 자신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 * 눈을 가리면 주변의 소리 · 냄새 · 피랍로 경사와 거리 · 범인 음성 등 기억
-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을 계속하고, 주는 것은 모두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약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 납치범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석방시기가 임박할 때도 자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여서도 안됩니다.
 - 구출작전이 전개될 때는 즉시 엎드려야 합니다.

■ 무력진압시 대처요령

- 당국은 인질구출을 위한 협상이 실패하여 구출전망이 희박하다고 판단시 마지막으로 무력진압을 단행하는데
- 이때 특공대원들이 문을 박차거나 섬광탄을 터뜨리고 장애물을 폭파시킨 후 순간적으로 진입하여 납치범들을 제압하므로
- 갑작스런 소리나 빛 또는 섬광이 나면 무조건 엎드려 있어야 하며 상황이 완전히 끝나고 특공대원이 일으킬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 화생방 테러

■ 생물테러

- 생물 테러의 증상은 고열 · 구역질 · 복통 · 설사 · 콧물 · 인후염 · 피부발진 및 피부염 · 안구충혈 · 무기력증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즉시 나타나지 않고 시일을 두고 나타나므로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테러에 사용되는 물질들은 이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면 치유가 가능하므로 즉시 경찰·질병관리본부(보건소) 등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생물테러 징후가 보이면 방송이나 보건 당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파악,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중점 관심사항

- ▶ 위험지역 또는 위험한 상황속에 있는지?
 - ▶ 질병의 증상 또는 징후가 어떤지?
 - ▶ 치료약 또는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지?
 - ▶ 어디서, 누가 질병에 감염되었는지?
 - ▶ 감염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 인근지역에 생물테러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 및 청결 상태 등을 유지하고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생물테러 의심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 손수건 · 휴지 등을 여러 겹으로 겹쳐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하면서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하며
- 비눗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화학테러

- 근육 경련 · 피부 화끈거림 · 호흡곤란 · 균형감각 상실 등 신체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거나 주변 동물과 나무가 갑자기 죽는 등 화학테러의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히 오염지역과 오염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빠른 시간내에 오염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 오염물질이 건물 내에 있을 경우 오염된 곳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건물에서 빠져 나오도록 하며
- 오염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건물에서 나올 수 없거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 경우, 오염물질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오염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지, 건물내 대피소로 이동해야 할지를 빠른 시간내에 판단해야 합니다.
- 촘촘한 면제품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려 화학물질이 걸러진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린이 등 노약자가 있을 경우 가용한 모든 물품으로 적합한 보호장구를 만들어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코·입·눈·상처부위 등은 여러겹의 천 등으로 감싸, 화학물질이 더이상 접촉되지 않도록 한 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 옷을 벗고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이때 피부를 세게 문지르면 오염물질이 피부를 통해 침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보건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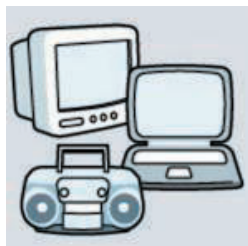
■ 방사능 테러

- 방사능 테러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신속히 코와 입을 가리고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건물 안으로 피신하고



-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건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그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내 방사능 유출 경고가 있을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히 바깥으로 나와 오염되지 않은 건물이나 대피소로 피신해야 하며
- 건물이나 대피소에 들어가서는 창문을 잠그고 에어컨 · 히터 · 환풍 장치를 끄도록 합니다.
-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오염된 옷을 벗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 어떤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침을 TV · 라디오 ·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 하도록 해야 합니다.





Memoranda _____

_____Memo



Memo! _____

Memo!



Memo! _____

국가안보에도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111,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신고안테나를 높여 보세요
잡음이 사라집니다”

신고상당은 **국번없이 111**

테러·마약·밀수·위폐·밀입국·총기 등



국가정보원
www.nis.go.kr



테러 신고는
국번없이 111번으로

국가정보원